



강철구(웨신대학원대)

## 1. 서론

욥기의 구성을 액자구성이라 한다. 즉, 산문형식인 욥기 1-2장의 머리말과 욥기 42장 7-17절의 맺음말은 시(대화) 형식의 본문인 욥기 3장 1절-42장 6절을 액자처럼 감싸고 있다는 뜻이다.<sup>1)</sup> 이것은 비단 욥기 전체의 형식에서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형식과 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욥기 1-2장과 42장 7-17절이 욥기 3장 1절-42장 6절 없이도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기에 산문형식인 욥기 1-2장과 욥기 42장 7-17절의 연관

1)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음 서적을 보라. J. Ebach, *Streiten mit Gott: Hiob, Teil 1* (Neukirchner-Vluyt: Neukirchener Verlag, 1995), 1; 튀디거 룩스, 「이스라엘의 지혜」(구자용 옮김),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 원제 Lux, R., *Die Weisen Israels*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92), 40-46.

성만을 강조하다보면, 이 부분과 시(대화) 부분(욥 3:1-42:6)의 관련성을 소홀히 할 때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내용이나, 형식적인 면에서 욥기의 산문 부분과 시(대화) 부분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이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에, 서로에 대한 의존 없이 독자적으로 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sup>2)</sup> 욥기의 대화 부분을 도외시하지 않고, 욥기의 머리말과 맺음말 부분을 통합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부분은 욥기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sup>3)</sup> 욥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비록 욥기의 머리말과 맺음말이 비슷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중간의 긴 대화 부분으로 인해서 이 두 부분이 전혀 다르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욥기 형성사에서 산문 부분과 시(대화) 부분의 편집자가 다르고,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서로간의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화 부분을 통해서 머리말의 욥과는 다른 욥을 맺음말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욥기의 대화 부분, 특히 하나님과의 대화 부분이 욥의 인식의 변화의 내용과 이유를 설명해 준다면, 욥기의 맺음말 부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욥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기에 에바흐(J. Ebach)의 말처럼 산문 부분의 인내자 욥과 대화 부분의 저항하는 욥을 같은 인물로 볼 때 욥의 사고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sup>4)</sup> 산문 부분 안에서도 머리말의 욥과 맺음말의 욥도 같은 인물이지만, 사고체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 
- 2) 욥기의 산문과 대화부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하라. R. Heckl, *Hiob-vom Gottesfürchtigen zum Repräsentanten Israels: Studien zur Buchwendung des Hiobbuches und zu seinen Quellen* (FAT 70; Tübingen: Mohr Siebeck, 2010), 18, 25; M. Oeming/ K. Schmid, *Hiobs Weg: Stationen von Menschen im Leid* (BThS 45; Neukirchner-Vluyn: Neukirchener Verlag, 2001), 9-34. 산문과 대화부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욥기의 현재적인 형태를 전제로 서술하고자 한다.
- 3) 참조. M. Oeming/K. Schmid, *위글*, 39. 슈미트는 욥기 전체의 관점에서 1-2장(서론)을 해석한다면 1-2장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것을 넘어서서 프롤로그(1-2장)뿐만 아니라, 에필로그(42:7-17)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 4) 참조. J. Ebach, *Streiten mit Gott: Hiob, Teil 1* (Neukirchner-Vluyn: Neukirchener Verlag, 1995), 1.

본 논문은 욱기의 산문 부분인 머리말과 맺음말 전체를 다루기보다는 욱기 1장 1-5절의 ‘악을 멀리한 욱이 받은 복’이 언급된 부분과 이 부분과 상응하는 맺음말 부분인 욱기 42장 12-17절의 ‘회복된 복’을 언급하는 부분에 집중하려 한다. 얼핏 보기에는 처음과 마지막 부분은 거의 비슷한 주제와 내용이 언급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맺음말 부분의 욱이 머리말 부분에서보다 좀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것 외에는 그다지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sup>5)</sup>

만약 욱기 처음과 끝이 단지 이러한 차이밖에 없다면, 욱기 3장 1절-42장 6절의 수많은 대화들, 특히, 하나님과의 만남의 의미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욱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고, 더 많은 복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그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또한 그 깨달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본 논문은 욱기의 머리말과 맺음말의 틀 속에서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쓰여진 것이다. 욱기의 처음과 끝의 비교를 통해서 욱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신학적인 결론에 도달하고자 한다.

## 2. 본론

몇몇 학자들은 욱기의 머리말과 맺음말 부분을 관찰함으로써 두 부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며, 단지 복의 양과 딸들에 대한 언급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다. 즉, 욱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깨달음이 욱기의 마지막 부분(에필로그)에서 두 배의 복과 딸들에 대한 강조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

5)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안근조, 「지혜의 말씀으로 읽는 욱기」(서울: 한울출판사, 2007), 211을 보시오.

욥의 어떤 깨달음과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sup>6)</sup>

만약 욥기를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욥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었고, 악에서 멀리 떠난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잘 견디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갚아주셨다.’ 그러나 욥기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친구들과 수많은 토론과 논쟁을 벌이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도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답판을 벌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욥기의 머리말과 맺음말의 복과 관련된 부분을 번역하고,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1) 본문 번역<sup>7)</sup> (욥 1:1-5과 욥 42:12-17)

욥 1:1-5	욥 42:12-17
1 우스땡에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욥이었다.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다.	12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 욥은 양 만 사천 마리, 낙타 육천 마리, 소 천 겨리, 나귀 천 마리를 소유했다.
2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났고,	13 그리고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있었다.
3 그의 가족(재산) <sup>8)</sup> 은 양이 칠천 마리, 낙타가 삼천 마리, 겨릿소가 오백 쌍, 암나귀가 오백 마리가 되고, 종도 아주 많았다. 이 사람은 동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자였다.	14 그리고 그는 첫째의 이름을 여미마, 둘째의 이름을 구시아, 셋째의 이름을 게림함복이라고 불렀다. 15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sup>9)</sup> 여자들은 땅위에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

- 6)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언급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저작으로는 다음과 같다. J. Ebach, "Hiobs Töchter", J. Ebach, *Hiobs Post: Gesammelte Aufsätze zum Hiobbuch, zu Themen biblischer Theologie und zur Methodik der Exegese* (Neukirchen-Vluyn: Neukircher Verlage, 1995), 67-72; R. Heckl, *Hiob-vom Gottesfürchtigen zum Repräsentanten Israels: Studien zur Buchwendung des Hiobbuches und zu seinen Quellen* (FAT 70; Tübingen: Mohr Siebeck, 2010). 이 부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관련된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욥기 1장1-5절과 42장 12-13절의 본문을 비교하는 논문을 김진명이 연구했다. 김진명, "욥기의 서언과 곁어에 나타난 '소유'(재산) 목록과 '신명'(神名)의 변화 문제에 대한 연구: 1장1-5절과 42장 12-13절 본문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59집 (2016년 3월), 102-124..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주로 신명을 중심으로 다뤘기 때문에 딸들의 의미와 종에 대한 연구, 즉 욥의 깨달음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경택, 「지혜의 말씀으로 읽는 욥기」, (서울: 한들출판사, 2007), 46-53, 280-283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주로 욥기의 화자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다. 화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십시오. 우상혁, "이야기로서 욥기 읽기", 「구약논단」, 39집 (2011년 3월), 83-107.
- 7) 이 부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본 논문에서 언급되는 모든 히브리어 성서본문은 BHS를 기본텍스트로 삼았으며, 필자의 사역임을 밝혀둔다.

<p>4 그의 아들들은 그의 날에, 한 형제의 집에서 잔치(주연<sup>9</sup>)를 행했다. 그리고 그들은 보내서, 그들의 세 자매를 불렀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p> <p>5 잔치날이 끝나면, 옴은 보내서, 그들을 성결하게 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 각각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왜냐하면 옴이 말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나의 아들들이 잘못을 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축복<sup>10</sup>(저주)할 수 있다." 옴은 매 순간 이렇게 했다.</p>	<p>에게 유산(땅)<sup>10</sup>을 주었다. 그들의 형제들처럼.</p> <p>16 이후에 옴은 백사십 년을 살았다. 그는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아들들, 사대를 보았다.</p> <p>17 그리고 옴은 늙고, 날들이 차서 세상을 떠났다.</p>
--	--

## 2) 옴기의 머리말(프롤로그)과 맺음말(에필로그)의 유사점과 차이점

옴에게 머리말에서부터 맺음말 부분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었을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많은 재산과 자녀, 명예와 건강을 잃었고, 친구들과의 긴 논쟁의 과정을 경험해야 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옴은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다(옴 42:1-6). 그 이후에 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머리말에서 옴이 잃었던 재산, 사회적 관계와 지위, 그리고 자녀들을 맺음말에서 회복한다. 옴은

- 8) 히브리어 단어  $\text{מִשְׁעָר}$ (미크네)는 집합명사로서 기본적으로 "가족"(소유)이나 "땅"(소유)을 가리킨다. W. Gesenius,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H. Donner(ed.) (Heidelberg/Dordrecht/London/New York: Springer, 182013), 731; L. Koehler/W. Baumgartner,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 (Leiden/Boston: Brill, 2004), 594; 그러나 학자들에 따라서 종들을 포함시켜서 넓은 의미의 "재산"이나 "소유물"로 번역하기도 한다. 데이빗 J. A. 클린스, 「옴기 1-20」(한영성 옮김), (서울: 솔로몬, 2006). 원제는 David J. A. Clines, *Job 1-20* (WBC 17; Dallas: Word Books, 1989), 182.
- 9) 히브리어 단어  $\text{מִשְׁעָר}$ (미쉬테)는 한글로 "잔치"로 번역될 수 있지만, 잔치의 내용에 있어서는 술과 관련된 잔치로 이해해야 한다. W. Gesenius, *윌겔*, 762.
- 10) 비록 맛소라 텍스트에서는 문자 그대로 "축복하다"의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저주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서기관들의 변형이라고 한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하경택, *윌겔*, 51-52 (각주 17)을 참조하라.
- 11) 여기서 "아름다운"은 히브리어  $\text{יָפֵה}$ (야페)가 사용되었다. '야페'는 주로 '아름다운' 혹은 '좋은'으로 번역된다. W. Gesenius, *윌겔*, 478-479. 여기서는 딸들의 외모와 관련된 '아름다운'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 12) 히브리어 단어  $\text{יָרֵשׁ}$ (나할라)는 여기서 "토지와 관련된 유산"을 의미한다. W. Gesenius,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H. Donner(ed.) (Heidelberg/Dordrecht/London/New York: Springer, 182013), 803.

재산에 있어서는 두 배로 보상을 받는다. 그러기에 머리말과 맺음말의 복과 관련된 부분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몇몇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위의 번역과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 (1) 머리말과 맺음말 부분의 유사성과 문제점

욥기는 한 가정에서 시작해서, 그 가정에서 마무리 한다. 머리말에서 욥은 동방에서 매우 큰 자로 많은 재산을 소유했고, 그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다.<sup>13)</sup> 그러나 하나님과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욥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 후 욥은 친구들과 치열한 논쟁, 하나님과의 긴 대화를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함으로 다시 동방에서 부유한 자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산과 복의 관점에서 보자면 머리말과 맺음말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기에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머리말과 맺음말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욥기의 대화 부분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위회복의 관계, 의인의 부당한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상(이미지)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식이나 주제들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한다.<sup>14)</sup>

### (2) 머리말과 맺음말 부분의 차이점과 이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욥기의 처음과 마지막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보면 몇 가지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차이점들에 대해서 하나씩 관찰해 보도록 한다.

---

13) 여기서 가족들의 수와 자녀들의 수는 욥의 경건한 삶으로 인해서 받은 하나님의 큰 복을 상징한다. J. Ebach, *윳글* (1995), 4; R. Lux, *Hiob. Im Räderwerk des Bösen* (BG 25;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2), 75-76.

14) 참조. J. Ebach, *Streiten mit Gott: Hiob, Teil 2* (Neukirchner-Vluyn: Neukirchener Verlag, 1995), 166.

① 전체적인 분위기(옴의 걱정 대(VS) 자유)

먼저 1장 전반부에서 묘사된 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멀리 떠난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5절에 묘사된 옴의 모습은 머리말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무겁게 한다. 옴은 그의 아들들이 혹시라도 죄를 범 할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옴기 1장 5절은 다음과 같다.

5 잔칫날이 끝나면, 옴은 보내서, 그들을 성결하게 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 각각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왜냐하면 옴이 말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나의 아들들이 잘못을 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축복(저주)할 수 있다.” 옴은 매 순간 이렇게 하였다.

옴은 해마다 자신의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딸들을 초청해서 연회를 즐기다가 혹시 실수로 하나님께 불경한 언행을 일삼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연회가 있었던 다음날 이른 아침에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sup>15)</sup> 이러한 옴의 모습 속에서 경건한 옴은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즐기고, 기뻐하는 옴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역설적이게도 자식들에게 있어서 즐거운 잔치가 옴에게는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sup>16)</sup> 반면에 42장 14-15절에서 언급된 옴의 묘사는 머리말과는 확연히 다르다. 비록 직접적으로 옴의 자유로움과 평안(shalom)을 누리는 것에 대한 묘사는 없지만, 전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비교적 안정과 여유를 만끽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딸들의 아름다움도 즐길 수 있는 옴과 만나게 된다.<sup>17)</sup>

15) 참조. M. Oeming/K. Schmid, 윗글, 52.

16) 참조. R. Heckl, 윗글, 231-236; 데이빗 J. A. 클린스, 윗글 (1989), 201-204.

17) 참조. J. Ebach, 윗글 (1995), 168.

## ② 자녀와 재산에 대한 양과 순서의 차이

1:2-3	42:12-15
1. 자녀 (아들 7, 딸 3)	1. 양 (14,000 마리)
2. 양 (7,000 마리)	2. 낙타 (6,000 마리)
3. 낙타 (3,000 마리)	3. 겨릿소 (1,000 겨리/쌍)
4. 겨릿소 (500 겨리/쌍)	4. 암나귀 (1,000 마리)
5. 암나귀 (500 마리)	5. 자녀 (아들 7, 딸 3)
6. 종	

위의 도표를 보면 머리말과 맺음말에 언급된 가축의 순서는 차이가 없다. 단지 숫자에 있어서 두 배의 차이만 보이고 있다.<sup>18)</sup> 반면에 자녀에 대해서는 아들 7<sup>19)</sup>과 딸 3명으로 숫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sup>20)</sup> 욥의 가축이 재난이 있기 전(1:3)에 비해서 두 배로 늘어났지만,<sup>21)</sup> 자녀의 수는 처음과 같은 수(1:2)를 유지한다. 머리말에서 욥의 자녀들이 재산에 들어가는 지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차이가 있지만, 필자의 생각에는 재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sup>22)</sup> 근동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녀들은 부모의 부유함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기도 하

- 18) 욥 42:16절을 통해서 욥의 수명(140세)도 보통의 경우보다 두 배로 길어졌음을 알 수 있다. 시편 90편 10절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의 수명은 70세다. 시편 90:10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 19) Clines의 경우에 아들들의 숫자가 히브리어에서 쌍수로 쓰였기 때문에 두 배인 14명일수가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즉, 아들 14명과 딸 3명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는 것이다. 데이빗 J. A. 클린스, 윗글 (2011), 1237.
- 20) 참고사항: 42장 16절에 나오는 사대에 걸친 자녀들에 대한 언급은 1장의 모습과는 다르다. 욥은 머리말에서 재난을 당한 자녀들의 숫자만큼 다시 얻게 되었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의 자녀들의 자녀들, 즉 4대까지 얻게 된다. 4대는 구약에서 한 지붕 밑에서 살 수 있는 세대를 가리킨다. 이로써 욥은 처음의 자녀들보다도 더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R. Lux, 윗글 (2012), 277.
- 21) 출 22:4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두 배로 주심으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불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David J. A. Clines, *Job 38-42* (WBC 18B; Nashville/Dallas/Mexico City/Rio de Janeiro: Thomas Nelson, 2011), 1237.
- 22) Heckl의 경우도 욥의 자녀들도 욥의 재산목록에 들어간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첫 번째 천상회의의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몸을 제외한 욥에게 속한 모든 것을 건드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 후에 사탄은 욥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목숨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R. Heckl, 윗글, 231; F. Gradl, *Das Buch Ijob* (NSK AT 12;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2001), 35.

기 때문이다.<sup>23)</sup> 그러나 맺음말에서 욥의 자녀의 숫자가 변화가 없다는 것은 욥의 자녀들은 일반적인 재산처럼 대치될 수 없는 귀중한 존재들이기에 더 이상 일반적인 재산이나 소유물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상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sup>24)</sup>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관련된 전체적인 순서는 조금 다르다. 머리말에서는 욥의 자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맺음말에서는 자녀가 가장 나중에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순서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그 외에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는 머리말에서 언급되었던 ‘중’에 대한 묘사가 맺음말에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 ③ 욥의 아들과 딸들에 대한 인식

머리말에서 욥의 아들들(7명)은 돌아가면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때 이들은 나머지 딸들(3명)을 초청했다. 여기서는 욥의 아들들이 이러한 행동의 주체로 언급되고 있다. 세 딸들은 이들의 초청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처럼 머리말에서는 딸들이 주체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반면에 맺음말에서는 단지 아들들의 숫자만 언급되어 있고, 딸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 두 부분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3) 참조. F. Gradl, *Das Buch Ijob* (NSK AT 12;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2001), 34.

24) Heckl도 프롤로그에서는 자녀들이 재산에 들어가지만, 에필로그에서는 자녀들이 재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R. Heckl, *룻*, 309. Ebach는 자녀의 숫자와 관련해서 자녀를 두 배로 돌려받지 못한 것은 자녀는 다른 소유물들처럼 재산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자녀들이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할 때 새롭게 태어난 자녀들과의 합이 두 배이기 때문일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Steckt in der Wiederholung statt der Verdoppelung die Auffassung, dass Kinder kein Besitz sind wie andere Güter? Oder bedeutet das Weiterleben der Gestorbenen in der Unterwelt dass die Kinderzahl insgesamt doch verdoppelt ist?" J. Ebach, *룻* (1995), 167.

욥의 아들들 (1:4-5)	욥의 딸들 (42:14-15)
4 그의 아들들은 그의 날에, 한 형제의 집에서 잔치(주연)를 행했다. 그리고 그들은 보내서, 그들의 세 자매를 불렀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	14 그리고 그는 첫째의 이름을 여미마, 둘째의 이름을 굿시아, 셋째의 이름을 게렌합복이라고 불렀다.
5 잔치날이 끝나면, 욥은 보내서, 그들을 성결하게 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 각각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왜냐하면 욥이 말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나의 아들들이 잘못을 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축복(저주)할 수 있다.” 욥은 매 순간 이렇게 하였다.	15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들은 땅위에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유산을 주었다. 그들의 형제들처럼.

머리말에서 인상적인 것은 1장 5절에서 욥이 스스로에게 말한 대목이다. 욥은 스스로에게 “혹시 나의 아들들이 잘못을 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여기에 언급된 아들들은 욥의 근심의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맺음말에서의 딸들에 대한 묘사에서는 이러한 근심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물론 욥이 직접 언급하지 않고, 화자가 설명하는 내용이지만, 여기에 기록된 욥의 딸들에 대한 묘사는 매우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다.<sup>25)</sup> 먼저 딸들의 이름<sup>26)</sup>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첫째 딸: **יְמִימָה**(여미마 / 멧비둘기)

둘째 딸: **גִּדְיָאָה**(굿시아 / 계피나무 꽃)

셋째 딸: **כֶּרֶן הַפֶּקֶד**(게렌합복 / 뿔모양의 화장용도구)

욥의 딸들의 이름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세 이름 모두 여성의 아름다움이나 사랑스러움과 연관된 이름이라는 것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된다.<sup>27)</sup> 그렇다면 구약성서에서 여인들의 이름

25) 욥의 딸들에 대해서 다음 서적을 참조하십시오. J. Ebach, *윗글* (1995).

26) 참조. R. Lux, *윗글* (2012), 278.

27) 참조. G. Fohrer, *Das Buch Hiob* (KAT XVI; Gütersloh: Gerd Mohn, 1963), 544; R. Lux, *윗글*, 277-

다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sup>28)</sup>

먼저 구약성서의 여성의 아름다움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들 백성의 구원을 위한 기초가 되기도 한다(에 2:2,3,7)<sup>29)</sup>. 이렇게 구약성서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에 관한 모티브는 축복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구약성서의 많은 부분에서 여인의 아름다움은 그녀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이 될 수 있다(창 12:11-20; 20:1이하; 26:7; 에 1:11)<sup>30)</sup>. 특히 욥기가 속해있는 지혜서의 경우도 여성의 아름다움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묘사된다. 잠언 31장 30절이 대표적이다.

30 매력적인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 받는다.

그러나 다른 지혜서들과는 달리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딸들의 아름다움은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하고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장면은 머리말에서의 경직된 분위기와는 확연히 다르다. 욥의 딸들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진다. 머리말에서 욥은 동방의 다른 이들보다 더 크다고 언급되고 있다. 이것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다. 그런데 맺음말에서 욥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욥을 동방에서 큰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물질과 대비될 수 있는 아름다움과 관련해서 “땅위에서 욥의 딸들보다 아름다운 이들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만큼 딸들에 대

278.

28) 구약성서에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십시오. J. A. Loader, "Schönheit zwischen Segen und Errettung", ZAW 124 (2012), 163-179.

29) 참조, J. A. Loader, 윗글, 174.

30) 참조, 윗글, 167.

해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욥의 관점(욥기 저자의 관점)의 변화는 세 딸들에 대한 묘사에서 잘 언급되어 있다.

동시에 딸들의 지위역시 그들의 아름다움에 비례해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민수기 27장1-11절(참고, 신 21:15-17)에서 구약성서 본문 중 유일하게 딸들에게도 땅을 상속시키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버지가 아들, 즉 상속자가 없이 죽었을 때로 제한한다. 민수기 27장 8절에 다음과 언급되어 있다.

8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라.

죽었고, 그에게 아들이 없는 사람, 너희들은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상속 시켜라

그러나 욥기에서는 욥의 딸들도 아들들과 똑같이 상속인에 들어간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욥이 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만큼의 큰 부자라는 의미이고, 둘째는 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sup>31)</sup> 그러나 욥이 그의 딸들에게 유산을 물려준 것은 단지 욥의 딸들이 아름답기 때문만은 아니다.<sup>32)</sup>

구약성서에서 많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큰 복이다(시 127:3-4; 128:3; 144:12).<sup>33)</sup> 그중에서도 특히 아들들은 딸들보다는 더 큰 축복이자, 미래에 대한 보장이다(창 15:2-3).<sup>34)</sup> 그럼에도 욥기의 맺음말에서 욥의 딸들에 대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욥이 하나님과 만난 이후에 인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이다.

31) 참조, R. Lux, *윳글* (2012), 278-279.

32) Clines는 욥이 딸들에게 유산을 준 것은 욥의 딸들의 아름다움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David J. A. Clines, *윳글* (2011), 1238. 그러나 필자는 욥의 딸이 단지 아름답기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임을 주장한다.

33) 참조, G. Fohrer, *윳글*, 74; L. Schwienhorst-Schönberger, *Ein Weg durch das Leid. Das Buch Ijob* (Freiburg: Herder, 2007), 14.

34) 참조, F. J. Stendebach, "Sohn", *NBL* 3 (2001), 624.

즉, 필요와 재산상의 가치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보는 시각이 열렸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아들들에 비해 덜 생산적으로 보이는 딸들에 대해서도 깊은 애정을 보이는 것이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인간세계와 격리되어서 살고 있는 부정한 야생 동물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거할 처소와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준과 가치를 넘어서서 아무리 작고, 보잘 것 없는 생명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권리를 주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남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무시되어온 여인들에게도 해당되어야 한다. 여인들도 자신의 권리와 그들 자신만의 공간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당연히 욥의 딸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의 경제적인 안정이나, 미래에 노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가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욥의 세 딸들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욥의 세 딸의 아름다움이 의미하는 것은 비록 세상엔 여전이 어둠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조화롭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이다.<sup>35)</sup> 이러한 딸들의 묘사를 통해서 욥기의 편집자는 욥이 세상을 보는 눈이 변화되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sup>36)</sup> 그러기에 욥이 그의 딸들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식에 도달한 욥과 만날 수 있다.

#### ④ 종에 대한 인식

머리말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 가운데서 맺음말에 빠진 단어

35) 이것과 관련하여 다음 책들을 참조하십시오. J. Ebach, *뫼글* (1995), 72; J. Ebach, *뫼글* (1996), 168; C.-G. Kang, *Behemot und Leviathan. Studien zur Komposition und Theologie von Hiob 38,1-42,6* (WMANT 14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7), 320.

36) 참조. J. Ebach, *뫼글* (1995), 68. "Es geht—in der Relation zum Anfang—um einen neuen Blick auf sein Leben."

가 있다. 바로 ‘중’이다. 1장 3절에 따르면 욥은 많은 중을 거느리고 있었다. 중들은 가축과 같은 재산목록 가운데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 물론 히브리단어 미크네(מִקְנֵה/ 재산, 소유)에 중이 포함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sup>37)</sup>, 필자의 견해로는 욥기에서만큼은 재산목록에 중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포러(G. Fohrer)에 따르면 구약성서에서 중은 권리를 가진 법률적 주체(Rechtspersönlichkeit)라기보다는 법률적 객체(Rechtsobjekt)이고, 재산에 속한다.<sup>38)</sup> 그런데 맺음말에서 욥의 회복된 재산목록 속에서 중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왜 중이 여기서 더 이상 재산 목록에 언급되지 않는 것일까?

이것은 필사자들의 실수이거나, 우연이라기보다는 욥이 자신의 딸들을 바라보는 관점의 연상선속에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욥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맺음말에서 재산의 일부인 중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도 욥이 더 이상 사람인 중을 재산이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만나서, 긴 대화를 한 이후의 욥은 더 이상 머리말에서 보았던 욥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욥기 30장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욥의 가난하고, 비루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간접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다.

1 그러나 이제 나이에 있어서 나보다 젊은이들이 나를 비웃는다.

나는 그들의 아버지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가축 떼의 개들과 함께 있다

37) 자세한 것은 각주 9를 참조하십시오.

38) 참조, G. Fohrer, *윗글*, 76.

[ ... ]

8 (그들은) 어리석음(악함)<sup>39)</sup>의 자식들이고, 이름 없는 자식들이다.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났다.

이 부분은 욥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회적 위치가 전복된 상황에 대한 탄식이다.<sup>40)</sup> 그럼에도 이러한 욥의 말속에서 욥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부분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젊은이들이나 이들의 아버지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 혹은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유리하는 자들로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행위회복의 세계관 속에서는 성공한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 악을 저지른 자들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들은 욥기 38장 39절-39장 30절에 등장하는 인간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부정한 10마리의 동물들과 같은 처지의 존재들에 대한 상징일 수 있다. 그러기에 욥은 이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전의 욥은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고, 선행과 자비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이해에 대한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동물들이 인간의 관점에서는 부정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임에도 이들을 입히시고, 돌보시는 “동물의 주”<sup>41)</sup>로 언급되고 있다.

39) 계제니우스 18판에 따르면 𐤁𐤍(나발)은 형용사로는 '어리석은', '가치 없는', '반사회적인', '사악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W. Gesenius, *윗글*, 774-775.

40) 참조. L. Schwienhorst-Schönberger, "Das Buch Ijob", E. Zenger(ed.), *Stuttgarter Altes Testament*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sup>3</sup>2005), 1019. 이 부분을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 관찰한 것으로는 Newsome의 연구가 있다. Carol A. Newsom, *The Book of Job: A Contest of Moral Imagin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183-199.

41) "동물의 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U. Neumann-Gorsolke, *Wer ist der "Herr der Tiere"?* *Eine hermeneutische Problemanzeige* (BThSt 85;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2)를 참조하시오. 추가적으로 구약성서와 관련된 동물들에 관해서는 구자용의 논문을 참조하라. 구자용, "야훼, 동물의 주: 신학적 동물학에 대한 소고", 『구약논단』, 56집 (2015년 6월), 205-235.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 결과가 욥기의 맺음말에 재산이나 소유물로서의 ‘중’(사람)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욥은 그의 딸들에 대한 시선과 마찬가지로 그의 중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 3) 욥기의 머리말과 맺음말의 관점에서 본 욥의 인간이해<sup>42)</sup>

위에 언급된 욥의 딸들과 중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욥의 인간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중의 하나가 욥이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상(Menschenbild)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욥의 변화와 깨달음과 관련해서는 이미 욥기 42장 6절의 후 반절 번역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 욥기 42장 6절에 대한 다양한 번역과 해석이 존재한다.<sup>43)</sup> 그 중에서도 몇몇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즉, 욥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먼지와 재”에 대해서 “그의 마음을 바꿨다” 혹은 “새롭게 인식했다”로 이해한다.<sup>44)</sup> 물론 필자는 이러한 번역과 이해에 완전히 동의하진 않는다.<sup>45)</sup> 그럼에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사람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는 주장인데 필자도 여기에는 동의하는 바다. 그러나 욥이 자신(인간)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로 인식했다는

42) 욥기의 인간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M. Remus, *Menschenbildvorstellungen im Ijob-Buch: Ein Beitrag zur alttestamentlichen Anthropologie* (Frankfurt am Main/Berlin/Bern/New York/Paris/Wien: Peter Lang, 1993); C.-G. Kang, *윳글*, 294-315.

43) 욥기 42장 6절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책을 보시오. 김상기, “욥기 42:1-7: 이유 없는 고난,” 『성경원문연구』 26호 (2010년 4월), 32-52.

44) 참조. K. Schifferdecker, *Out of the Whirlwind: Creation theology in the Book of Job* (Harvard theological studies 61;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8), 188; J. 제럴드 켈슨, 「욥기」, 한진희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332-338.

45) 필자는 6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나는 관심이 없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생각을 바꾼다.’ 필자의 관점에서는 욥은 하나님과 만난 후에 자신이 이전에 제기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고, 현재의 상황 속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세상 그리고 인간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참조. C.-G. Kang, *윳글* (2017), 190-194.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sup>46)</sup> 물론 욥기는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인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라고 볼 순 없다. 욥기의 인간이해는 이중적이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은 작고, 보잘 것 없는 존재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숭고한 존재이기도 하다.<sup>47)</sup> 욥기는 인간이 하잘 것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욥)에게 다가오셔서 대화하시고, 논쟁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욥(인간)에 대한 인정과 사랑이 드러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sup>48)</sup> 이런 의미에서 욥이 세상을 비롯해서 인간을 보는 눈이 새롭게 되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여기엔 연약한 자들에 대한 강조가 있다.<sup>49)</sup> 특히 소외된 인간에 대한 이해다. 욥은 기존의 행위화복관계(인과응보의 원리)에 갇혀서, 사회에서 곤경에 처한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 사회저변에 있는 자들의 불행은 모두 그들의 악한행위의 결과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욥은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었다. 그럼에도 욥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틀의 제한으로 인해서 이들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과 이해는 부족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 보잘 것 없이 보이는 존재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통

46) 42장 6절 후반 절을 퍼듀(L. G. Perdue)는 고난당해야만 하는 존재에 대한 욥의 슬픔으로 이해한다. L.G. Perdue, "Creation in the Dialogues between Job and his Opponents", Th. Krüger 외(ed.), *Das Buch Hiob und seine Interpretationen. Beiträge zum Hiob-Symposium auf dem Momente Verita vom 14. - 19.* (ATANT 88;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07), 212-215. 퍼듀는 6절을 "I reject and am sorry about dust and ashes"(212)로 번역하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I reject you and feel sorry for dust and ashes"(214)로 본다.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That Job is not offering a 'confession' of arrogance or blasphemous accusation is obvious from the larger context of the Yahweh Speeches. Rather, the defiant Job continues his protest against the unjust God and is sorry for humanity that has no suffer under his callous oppression."(215).

47) 참조, M. Remus, 윗글, 112.

48) 참조, C.-G. Kang, 윗글, 314-315.

49) 비록 필자와 욥기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구티에레즈가 욥의 새로운 깨달음을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연대"로 보는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스타보 구티에레즈, 「욥기: 무고한자의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제3세계 신학연구소 번역실 옮김), (서울: 나눔사, 1991), 192-199.

해서 이러한 사회저변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욥기 42장 10-17절의 ‘욥의 딸들’에 대한 설명과 더 이상 재산에 ‘중’이 언급되지 않은 것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3. 결론

위에서 고찰한 것처럼 욥기의 머리말과 맺음말은 전체적인 분위기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비슷한 듯하지만 확연히 다르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욥기의 저자는 욥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맺음말에서 언급하는 욥의 부유함과 딸들의 아름다움, 삶의 균형과 조화, 그의 가족, 그리고 주변의 모습은 이미 머리말에서 언급된 욥에 대한 묘사를 월등히 넘어서고 있다.<sup>50)</sup> 우리는 욥기의 맺음말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게 된 욥과 만나게 된다. 욥은 억울한 고난,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욥이 보는 세상은 단지 어둠만이 존재하고, 이러한 세상을 떠나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인 세상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sup>51)</sup>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세상은 아직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다. 동시에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했음을 알 수 있다. 고난을 당하기 전의 욥은 그의 세 친구들과 다르지 않은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행위회복(인과율)의 세계관에 따르면 현재의 상태는 그 사람의 이

50) 참조, R. Lux, *윳글* (2012), 278.

51) 죽음의 세계를 갈망하는 욥의 모습은 욥기 3장에서 볼 수 있다. 욥기 3장의 이해와 관련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하시오, K.-T. Ha, *Frage und Antwort: Studien zu Hiob 3 im Kontext des Hiob-Buches* (HBS 46; Freiburg/Basel/Wien/Barcelona/Rom/New York; Herder, 2005).

전의 행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은 이들의 이전의 삶의 행위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받는 당연한 결과들이다. 그러기에 비록 욥이 스스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었음에도 이들에 대한 인식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고난을 당한 후에 이러한 생각들이 변한다. 이 땅에는 욥 자신처럼 의인임에도 고난 당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약성서의 세계에서 소외되고, 약한 이들을 대표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여인들과 종들일 것이다. 그러기에 욥은 자신의 세 딸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딸들의 아름다움을 언급하고, 자신의 재산을 세 딸들에게도 분배했다. 맺음말에서 욥의 딸들의 아름다움과 재산분배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욥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아니다. 그것은 욥의 인간과 세상에 대한 변화된 관점을 표현하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1장의 재산 목록에 등장하는 ‘종’이 42장 결론의 재산목록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종도 이스라엘에서는 약한 자들이며, 자신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욥 38:1-42:6)에 등장하는 수많은 야생동물보다 더 귀한 생명들임에 틀림없다.<sup>52)</sup> 그러기에 욥도 이들을 더 이상 소유물로서의 재산목록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욥의 세 딸들과 종들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한 욥의 사고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가리

52) 구약성서 전반에 걸친 동물들에 관해서는 구자용의 논문을 참조하라. 구자용, “야훼, 동물의 주: 신학적 동물학에 대한 소고”, 『구약논단』, 56집 (2015년 6월), 205-235; 욥기에 관해서는 강철구의 논문을 참조하라. C.-G. Kang, 윗글, 99-103; 강철구, “욥의 하나님 이해: 욥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63집 (2017년 3월), 139-164.

키는 것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욥의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새롭게 수정된다. 이로써 욥은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삶, 가득 채워진 삶으로 마감할 수 있었다.

#### 4. 참고문헌

- 강철구, “욥의 하나님 이해: 욥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63집 (2017년 3월), 139-164.
- 구스타보 구티에레즈, 『욥기: 무고한자의 고난과 하느님의 말씀』 (제 3세계 신학연구소 번역실 옮김), (서울: 나눔사, 1991). 원제는 Gutiérrez, Gustavo, *Hablar de Dios desde el sufrimiento del inocente* (centro de estudios y publicaciones: Lima, 1986).
- 구자용, “야훼, 동물의 주: 신학적 동물학에 대한 소고”, 『구약논단』 56집 (2015년 6월), 205-235.
- 김상기, “욥기 42:1-7: 이유 없는 고난”, 『성경원문연구』 26호 (2010년 4월), 32-52.
- 김진명, “욥기의 서언과 결어에 나타난 ‘소유’(재산) 목록과 ‘神明’(神名)의 변화 문제에 대한 연구: 1장1-5절과 42장 12-13절 본문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59집 (2016년 3월), 102-124.
- 데이빗 J. A. 클린스, 「욥기 1-20」 (한영성 옮김), (서울: 솔로몬, 2006). 원제 Clines, David J. A., *Job 1-20* (WBC 17; Dallas: Word Books, 1989), 182.
- 뤼디거 룩스, 「이스라엘의 지혜」 (구자용 옮김), (과주: 한국학술정보, 2012). 원제 Lux, R., *Die Weisen Israels*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92).

- 안근조, 「지혜의 말씀으로 읽는 욥기」 (서울: 한들출판사, 2007).
- 우상혁, “이야기로서 욥기 읽기”, 「구약논단」 39집 (2011년 3월), 83-107.
- 하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욥기연구」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6).
- J. 제럴드 켄슨, 「욥기」, 한진희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 Clines, David J. A., *Job 38-42* (WBC 18B; Nashville/Dallas/Mexico City/Rio de Janeiro: Thomas Nelson, 2011).
- \_\_\_\_\_, *Job 21-37* (WBC 18A; Nashville: Thomas Nelson, 2006).
- Ebach, J., " Hiobs Töchter ", J. Ebach, *Hiobs Post: Gesammelte Aufsätze zum Hiobbuch, zu Themen biblischer Theologie und zur Methodik der Exegese* (Neukirchen-Vluyn: Neukircher Verlage, 1995).
- \_\_\_\_\_, *Streiten mit Gott: Hiob, Teil 1* (Neukirchner-Vluyn: Neukirchener Verlag, 1995).
- \_\_\_\_\_, *Streiten mit Gott: Hiob, Teil 2* (Neukirchner-Vluyn: Neukirchener Verlag, 1996).
- Fohrer, G., *Das Buch Hiob* (KAT XVI; Gütersloh: Gerd Mohn, 1963).
- Gesenius, W.,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H. Donner(ed.) (Heidelberg/Dordrecht/London/New York: Springer, 182013).
- Gradl, F., *Das Buch Ijob* (NSK AT 12;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2001).
- Ha, K.-T., *Frage und Antwort: Studien zu Hiob 3 im Kontext des Hiob-Buches* (HBS 46; Freiburg/Basel/Wien/Barcelona/Rom/New York; Herder, 2005).

- Heckl, R., *Hiob-vom Gottesfürchtigen zum Repräsentanten Israels: Studien zur Buchwendung des Hiobbuches und zu seinen Quellen* (FAT 70; Tübingen: Mohr Siebeck, 2010).
- Kang, C.-G., *Behemot und Leviathan. Studien zur Komposition und Theologie von Hiob 38,1-42,6* (WMANT 14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7).
- Koehler, L./Baumgartner, W.,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 (Leiden/Boston: Brill, 2004).
- Loader, J. A., "Schönheit zwischen Segen und Errettung", *ZAW* 124 (2012), 163-179.
- Lux, R., *Hiob. Im Räderwerk des Bösen* (BG 25;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2).
- Neumann-Gorsolke, U., *Wer ist der "Herr der Tiere"? Eine hermeneutische Problemanzeige*, (BThSt 85;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2).
- Newsom, Carol A., *The Book of Job: A Contest of Moral Imagin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Oeming, M./Schmid, K., *Hiobs Weg. Stationen von Menschen im Leid*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1).
- Perdue, L.G., "Creation in the Dialogues between Job and his Opponents", Th. Krüger (ed.), *Das Buch Hiob und seine Interpretationen. Beiträge zum Hiob-Symposium auf dem Momente Verita vom 14.-19.* (ATANT 88; Zürich: Theologiescher Verlag Zürich, 2007), 197-216.
- Remus, M., *Menschenbildvorstellungen im Ijob-Buch: Ein Beitrag zur alttestamentlichen Anthropologie* (Frankfurt

- am Main/Berlin/Bern/New York/Paris/Wien: Peter Lang, 1993).
- Schifferdecker, K., *Out of the Whirlwind: Creation theology in the Book of Job* (Harvard theological studies 61;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8).
- Schwienhorst-Schönberger, L., "Das Buch Ijob", E. Zenger(ed.), *Stuttgarter Altes Testament*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32005), 989-1036.
- Schwienhorst-Schönberger, L., *Ein Weg durch das Leid. Das Buch Ijob* (Freiburg: Herder, 2007).
- Stendebach, F. J., "Sohn", NBL 3 (2001), 624.

검색어

인간상

딸들

중들

머리말과 맺음말

축복

Hiobs neue Vorstellungen von Menschen  
- Betrachtungen zu Prolog (1-2) und Epilog (42:7-17)  
Hiobbuches -

Chol-Gu Kang, Dr. theol.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Der Artikel untersucht Unterschiede zwischen Prolog und Epilog des Hiobbuches. Zuerst gehe ich davon aus, dass der Prosatext (Hi 1-2; 42:7-17) und der poetische Text (Hi 3:1-42:6) miteinander eng verbunden sind. Im Zusammenhang zwischen Form und Inhalt haben die beiden eine enge Beziehung. Es kann nicht unabhängig gemacht werden, ohne aufeinander angewiesen zu sein. Wenn unter dieser Voraussetzung man Prolog und Epilog der Rahmenerzählung Hiobbuches einheitlich liest, wird man einen anderen Hiob im Epilog als im Prolog treffen. Während die Gottesreden und Hiobs Antworten (Hi 38:1-42:6) erklären, was und warum Hiob sich verändert hat,

www.kci.go.kr

werden Ergebnisse dieser Veränderung im Abschluss des Hiobbuches dargestellt.

Dieser Beitrag beschränkt sich auf Hiob 1:1-5 und 42:12-17 der ganzen Rahmenerzählung. Es geht um den Segen des Prologes und die Wiederherstellung des Epiloges. In dieser Vergleich erweisen sich Unterschiede zwischen Anfang und Ende, und neue Erkenntnisse Hiobs.

Das Milieu von Epilog ist ganz anders als das von Prolog. Er ist nicht mehr der Hiob von Kap. 1:1-5. Durch dieses Vergleich will der Verfasser des Hiobbuches zeigen, dass durch die Begegnung mit Gott Hiob neue Erkenntnisse über den Menschen erreicht hat. In der Mitte stehen Töchter Hiobs und sein Gesinde.

Was Gott Hiob zweimal mehr als früher gegeben hat, zeigt nicht nur Gottes Segen, sondern auch die Versöhnung mit Gott. Die Schönheit der Töchter, Hiobs Großzügigkeit, dass Hiob seinen Töchtern Erbesitz unter ihren Brüder gegeben hat, und was Gesinde im Epilog ausgefallen ist, bedeuten eine neue Einsicht Hiobs in Menschen durch die Begegnung mit Gott.

Ähnlich wie Hiobs Töchter ist sein Gesinde nicht mehr auf der Liste von Eigentum im Epilog erschienen. Frauen und Gesinde sind auch gleichermaßen Gottes Ebenbild wie Hiob (Mann). Alle Menschen sind sicher würdig vor Gott. Nach den Gottesreden wendet sich Hiob neuen theologischen Positionen zu, durch die Gottesreden erhält er neue Einsicht in Bezug auf Menschen. Dieser Hiob ist nicht allein wiederhergestellt, sondern auch gründlich verändert. Er hat neues Menschenbild erreicht. Damit kann Hiob ein erfülltes Leben abschließen.

## Keywords

Menschenbild

Töchter

Gesinde

Prolog und Epilog

Segen

- 투고일: 2017년 7월 09일
- 심사일: 2017년 7월 11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8월 20일

[www.kci.go.kr](http://www.kci.go.kr)